



소 현 희  
(한솔동물병원 원장/수의사)

## 농장 병력(clinical history)이 먼저 관리되어야 한다

**사** 람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방문하여 아픈 곳과 증상을 의사에게 설명을 한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정밀진단이 필요한지 아니면, 간단한 약 처방만을 내리던지 판단을 하게 된다.

닭에 있어서는 농장주가 환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닭이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수의사에게 상의를 하게 된다. 이때, 농장주가 중요하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농장의 기존 병력이다. 농장의 기존 병력이 설명이 됐을 때,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내려 질 수 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매 파스의 폐사율을 기록하여, 내 농장의 폐사 유형을 수의사에게 설명하면 처치가 빨라질 수 있다.

1년에 5파스를 운영하는데, 여름, 가을에 걸린 1~2파스만을 제외하고, 후기 폐사율이 대체로 높은 육계농장이 있었다.

이 농장에 처음 방문했을 때는 부검소견으로 대장균증(간포막염)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우선은, 호흡기도가 손상된 계체가 많아 비타민A와 항균제를 투약하여 그 파스의 닭을 출하하였다. 하지만, 이 농장의 호흡기 질병은 습도 관리나 환기가 용이한 계절을 제외하고 매 파스 문제가 되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매우 어린 일령부터 관찰되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어린 일령부터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계군은 일령이 커질수록 호흡기도 점막 손상이 심화되어, 후기 대장균증 폐사를 동반하는 유형이었다.

결국, 각 동에 가슴기를 설치하고, 과다 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후에야 호흡기 증상이 어린 일령에 유발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농장의 경우, 지금 입식 되어 있는 계군의 문제만을 설명하기 보다는 기존에 겪어왔던 농장의 병력을 설명하였다면, 좀 더 일찍 농장상황을 바로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균일도가 불량하여 병아리 품질 문제를 문의하는 사례에서도, 한 파스의 문제인지 매 파스의 지속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기존 병력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의외로 부적절한 급수 관리로 급수량이 저조하여 층아리가 지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도 급수관리와 관련된 한 농장 사례가 있었다.

산란 중추 병아리를 입식한 농장에서 10일령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 병아리 폐사가 많고, 약추가 많다는 내용이었다. 필자가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는 병아리 탈수증이었다. 필자도 처음으로 거래하는 농장이어서, 기존 관리사항은 자세히 알 수 없었으므로 농장주와 이런 저

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존에 늘 육계만 사육 하였으며, 육계 육성시의 출하 성적이 매우 우수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에 육계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산란 중추를 처음 사육하게 되었는데, 육계3만수 계사에 산란 중추 45,000수를 입식하였던 것이다. 농장주는 보조물통을 빼내고 다음날 병아리 폐사가 갑자기 늘었다고 설명하였다. 기존 입추수수보다 15,000수나 더 입식되었는데, 예전의 육계 급수 방식으로 병아리를 육성하다 보니, 탈수증이 유발되어 폐사가 났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처럼 농장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농장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기본 단계이다.

산란계 농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력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농장관리가 수월하다.

입식 되는 때 파스의 사료, 병아리, 일령별 체중, 혈청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여, 산란율과 비교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저조한 산란율이 외부에서 유입된 질병 문제인지, 내부 관리의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체적으로 산란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ND, IB, AI 등의 질병문제가 발생하여 저조한 산란피크를 유발시키는데, 이러한 질병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산란 피크가 90%선에 그칠 수 있다.

실제로, 혈청 검사시 산란율에 영향을 주는 큰 질병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산란피크를 높게 올리지 못하는 사례에서 중추 시기 만성 콕시듐증으로 인한 저체중 및 균일도 불량인 산란율의 원인이었던 적이 있다.

산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들에 대한 혈청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여, 질병 유입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농장주의 병력 설명이 아주 중요하다. 주변 농장의 상황, 노계 출하 여부, 사료 급이량 및 급수량의 변화, 산란율과 폐사율 등의 변화를 꼼꼼히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산란율이 줄었을때도 알 상태는 좋으면서 산란 갯수만 줄었는지, 몰알 등의 파란이 집란 과정에서 빠져서 산란율이 줄었는지도 당연히 설명해야 한다.

필자가 백신회사에 근무할 때, 아시아지역 수의사들을 위한 필드 진단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 훈련과정 중에 한 농장의 사례를 설명하고 진단을 내리도록 하였는데,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이렇다.

A라는 농장에 3주령에 폐사가 다발하였고 균일도가 불량하며, 부검소견은 근육출혈, F낭 위축 등이었다. 이러한 농장 사례는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였으며, 이에 대한 진단을 내리라는 주문이었다. A농장에 대한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이 각 나라 수의사들로부터 쏟아졌다. A농장에 입식된 병아리가 다른 농장에 입식되어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는지, 이번 파스 이전에도 이러한 양상을 보였는지, 이 농장과 같은 사료를 쓰는 다른 농장의 상황은 어떠한지, 각 동별로 상황이 어떠한지 등 이었다.

결국, 여러 가지 병력을 종합하여 레오 바이러스 감염증을 가진단하고, 실제로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농장 사례에서 닭 부검소견을 의존했다면, 검보로병이라고 오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양계**